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김 혜 연*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
2. 미래를 향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Ⅲ. 결 론

Ⅰ. 서 론

평등주의를 이념으로 한 미래의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평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우리는 흔히 불평등이란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야기하는 계급간의 불평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계급간의 불평등 이외에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 즉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에 의한 성별분업 현상과, 남성의 역할과 남성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성차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므로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 구별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의 진위의 여부가 아니라 남녀간의 역할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지위의 차이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L.A.Walum[1]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1) Walum, L.R., *The Dynamics of Sex and Gender : a sociologecal perspective*(Chicago : Random MacNally, 1977), p.5.

성을 선천적 성(sex)과 후천적 성(gender)으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남성(male), 여성(female)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속성으로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를 부여하는 반면, 후자는 남자다움(masculinity), 여성다움(femininity)과 같이 출생후 주위 환경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성취적 지위(achieved status)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A.M.Ambert[2]는 G.P.Murdock[3]의 224개 사회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남녀간의 정형화된 역할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남성은 식량을 공급하는 책임을, 여성은 식사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는 분업 형태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4]

이와 같은 성역할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다. 사실 여성과 남성은 1차적 성징이 다르며 2차적 성징들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5]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E.E.Maccoby와 N.Jacklin[6]은 언어 능력, 시각-공간능력, 수리능력, 공격성의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간에 심리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만이 분만과 수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 한 성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성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전적인 사회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T.Parsons[7]는 경제의 분화에 가족구조가 부응하는 과정에서 성역할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내적, 표현적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가장 잘 적응하기 때문에, 남성은 목적달성 및 환경적응과 관련된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가족의 내부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는 상이한 기반 위에서 평가된다 할지라도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동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의 토대는 여전히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성별 분업이나 위계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S.Ortner[8]는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의 대비적 개념에 의해 남녀간의 역할차이

2) Ambert, A.M., *Sex Structure*(Ontario : Long man, 1976), p.38.

3) Murdock, G.P., "Comparative Data on the Division of La bor by Sex", *Soc ial Forces*, 15, 1935, pp.551~553.

4) Mead, M., *Male and Female*(New York : William Morrow, 1949), p.190.

5) ibid., p.190.

6) Maccoby, E.E. & Jacklin C.N.,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4).

7) Beechy, V., 강선미 역, "여성과 생산 : 여성노동에 대한 몇 가지 사회학 이론의 비판적 분석", 「여성과 생산양식」, 한겨레 출판사, 1986, pp.139~178.

8) Ortner, S., "Is Female to Male as Nature is to Culture?", *Women, Cultre and Societ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pp.6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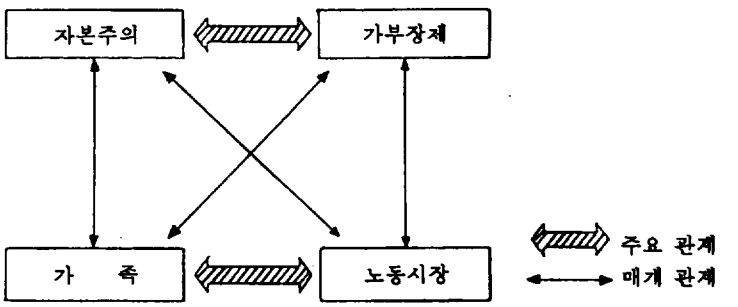
와 불평등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의 대부분은 자신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종족의 번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능이며 반복적인 것이므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 반면 이러한 여성의 생명 창조 행위에 비해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인 사냥이나 전쟁 등이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받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인 상태를 초월하고 통제하는 문화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구조나 기능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나 심리구조, 인성적 특질 등의 면에서도 모두 문화보다는 자연이라는 상징적 범주에 근접해 있어서 문화적 영역을 통제하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게 간주되며, 그들에 의해 통제,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종의 번식이라는 자연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창조적 업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주된 활동영역인 "가정"과 남성이 활동하는 "사회"는 상징적으로 "자연"과 "문화"의 범주와 대비되는데 여기에서 사회란 생물학적 단위인 가족을 통제하고 초월하는 것이므로 가족에 비해 우월한 영역이 된다.

이러한 S.Ortner의 견해는 기존의 생물학적 접근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성별분업과 그에 따른 가치불균형의 원인들을 이해하게 해주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차이만으로 남성우위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여성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변화하게된 역사적 배경에서 성별분업과 위계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영이 분리되면서 왜 여성이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비해 공적영역에서의 남성의 활동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이론의 분석시각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9]과 같다.



(그림 1) 여성노동의 변증법적 관계

9) Sckoloff, N., *Between Money and Love : The Dialectics of Women's Home and Market Work*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1), p.204를 지은희,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여성과 일」, 이대출판부, 1985, p.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접근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인류의 역사속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어 여성의 주된 역할인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05년 K.Schirmacher[10]는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A.Oakley[11]는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은폐되어져(invisible)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르러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하에 역사의 발전 속에서 과거 여성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가치평가의 변화를 고찰한 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미래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

가. 원시사회의 여성

역사상 찾아볼 수 있는 성별분업의 첫번째 형태는 주로 채집하며 후에 팽이로 밭을 일구는 일에 종사했던 여성과 멀리 나가 사냥하는 일에 국한되어있던 남성사이의 분업이다.

이러한 분업은 우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신체는 확실히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에 유리한 반면, 여성의 신체는 임신과 출산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착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렵채집사회에서 임신이나 수유중인 여성은 장기간의 여행을 요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냥과 전쟁에서 제외되고 거주지 주변에서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한다는 자연적인 성적 차이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노동을 여성의 일로서 점차 전문화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과 부담은 그들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출산 후 3~4년간의 수유기간에도 아이를 업고 채집을 할 수 있었으며, 이유 후

10) Shirmacher, K., "Die Frauemarbeit im Hause, ihre okonomische, rechtliche and soziale Wertung", *Frauenarbeit und Beruf* (Frank furt, 1979), p.203를 손덕수,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대출판부, 1985, pp.247~248에서 재인용

11) Oakley, A. 문숙재 역,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1991.

에는 진영(camp)에 남아 있는 어른들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12]

수렵채집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채집은 전체 식량의 60~80%를 차지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이었으므로 남성들이 수행하는 사냥보다 중요한 경제적 활동이었다. 또한 커다란 짐승을 사냥하는 수렵자들이 모두 사냥터로 나가게 될 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사냥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사냥도 출정도 취소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여성들이 남성들의 사냥과 출정을 결정하는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E.Leacock[13]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결혼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으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Z.Rosaldo[14]는 여성들이 담당했던 채집이나 덫을 사용하는 작은 짐승의 사냥등이 경제적으로 또는 전체집단의 생존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의해 얻어지는 큰 짐승의 고기가 상징적으로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L.Tiger와 R.Fox[15]와 같은 학자들은 인류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보다는 남성에 의해 수행된 수렵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수렵활동이 치밀한 계획, 상호협동 및 조직능력, 도구 사용을 위한 지혜 등을 필요로 하므로 여성이 수렵활동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조직능력, 협동능력, 상징체계의 형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채집 여성들의 흠모를 받은 육식공급자로서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영구히 성적 대상으로서, 일군으로서 복종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의 진위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 똑같이 생활을 위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이 갖는 중요성은 대등했다는 것이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생활 자원은 공유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은 협력해야지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므로 성별분업에 따른 위계나 계층분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렵채집사회에서 보여지던 남녀간의 역할구별은 원시농경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 다시 발아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인간은 그 이후 계획적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농경은 매년 적어도 확실한 수확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수렵이나 어로는 농경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계속적으로 주요한 것이었

12) Drapper, P., "! Kung Women : Contrast in Sexual Egaligarianism in Foraging and Sedentary Contexts", *Toward an Anthropogy of Women*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75), pp.77~109.

13) Leacock, E., "Women's Status in Egalitarian Society : implications for social evolution", *Current Anthropology*, 1978, pp.247~255.

14) Rozaldo, M.Z., "Women, Culture and Society : a theoretical review",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pp.17~42.

15) Tiger, L. & Fox, R., *The Imperial Animal* (New York : Holt, Rineheart and Winston, Inc., 1971).

고 남성의 노동은 여전히 그것을 보조하는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가축을 통한 농경이 가능해지고 가축의 사육이 남성의 일로 확립되자 그와 더불어 농업의 방향은 변화하였다. 즉 목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목초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유목적 농업이 된 것이다.

E. Fisher[16]는 여성이 남성에 예속된 것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다른 지역을 기습하면서 살아간 호전적인 유목민들에게서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축사육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재생산적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남성들은 여성을 노동자나 식량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주는 임산부로서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분업도 변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경제 방식의 결과가 여성종속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생산기술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씨족 공동체(clan)가 사회조직의 기본조직이었다. 씨족사회에서는 생산력이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고 생산물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는 자연경제 상태였다. 교환은 거의 없었으며 씨족 전체가 획득한 것은 모두 씨족 구성원 전체에 의해 소비되었다.

씨족구성원들의 협력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일정한 토지를 반복하여 경작하는 정착 농경이 시작되었고,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씨족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잉여생산물이 생기면서 한 씨족과 다른 씨족간에 생산물이 교환되기 시작했다. 생산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유 재산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생산자원의 공동소유에 기반을 두었던 씨족공동체의 정치·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

대부분의 종족의 경우 최초로 사유화된 것은 가축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목종족에게 있어서 가축이 최초의 주요한 교환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축이 사유화 되자 결국에는 대부분의 생산용구도 사유화되었으며 토지까지도 사유화되기에 이르렀다. 생산용구가 더욱 발달하게 되어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좁은 토지에서 비교적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게 되자 공동경작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어 씨족 공동체는 보다 작은 경제단위로 분열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으로 분열되었지만 더욱 작은 가족집단으로 분열이 이루어졌으며 분열된 가족집단은 가옥부지, 가옥, 농구, 가축 등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생산물은 가족의 사적 소유가 되었다.[17]

이와 같이 새로운 부가 공동체의 공유가 아니라 가족단위의 농경에 기초한 특정 가족의 사유재산이 되면서 가족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남성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우선 남성의 자손이 씨족 속에 잔류하게 되고 여성의 자손이 제거되었으며 그 아버지의 씨족에 포함되었다. 그 후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바뀌어 여계에서 남계로, 모권

16) Mies, M., 강정숙외 역, "성별노동분업의 사회적 기원", 「여성, 최후의 식민지」, 한마당 출판사, p.192.

17) 玉城肇, 김동희 역, 「세계여성사」, 백산서당 출판사, 1986, pp.54~55.

적 상속법에서 부권적 상속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의 지배가 확립되고 혼인도 실제로는 일부다처를 수반하는 일부일처혼으로 발전함과 더불어 고대문명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나. 고대국가의 성립과 여성

F.Engels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사유재산제의 발생이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영속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한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공동생산, 공동소비의 단위였던 씨족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경제단위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씨족의 단위안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남성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족내에 재산을 소유한 가장인 남성과 그에 예속된 자녀들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는 부권제, 가부장제의 기원이 된다.

둘째, 가족이 아직 씨족집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원시부족사회에서는 남성의 일이나 여성의 일이 모두 집단 전체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노동, 공적 노동의 성격을 지녔었다. 그러나 가족이 독립된 단위로 분리됨에 따라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출산, 육아, 요리등의 일은 공적인 기능에서 사적인 기능으로 변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일차적으로 개별가족의 유지를 위한 노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의 노동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차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성이 담당하는 일을 보다 열등한 것으로 규정짓게 되었다.

셋째, 경제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직접적인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보다 교환을 위한 상품생산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며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게 되었다. 이 때 교환을 위한 생산의 영역을 주로 남성이 담당하게 되고 여성의 생산활동은 주로 가내소비영역에 국한되게 됨에 따라 남녀 지위의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었다.

사유재산제의 발생 그 자체를 성차별의 기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유재산의 확대, 상품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국가라는 정치조직의 발달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여성의 불평등적 지위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족사회로부터 국가사회로 전환하는 시기는 여성의 지위가 하락되는 가장 큰 시련기였다. "새로운 국가가 강요하는 정치구조를 통하여 — 사회적이 아닌 — 공적인 남성권위가 발달하게 된다. 국가는 부족의 자원기반인 토지나 노동력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부족사회의 성별분업과 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는 그것을 내적으로(부인과 아이들 위에 남성을), 외적으로(농부와 농노 위에 주인을) 위계적 관계에 배치한다. 부족의 지역적 권리에 아랑곳없이 왕은 지방정부를 수립, 행정가들을 임명하였으며 족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성들에게는 개별가족의 '장'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부족집단들은 부족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잃었으며 여성과 아

이들은 역시 집단권리를 상실, 남편의 권위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성의 일은 친족집단의 공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남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행위로 되었다."[18]

한편 Muller[19] 역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축소를 첫째, 생산 방법의 변화와 분업관계에서 여성 역할의 가치가 절하됨으로써 생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둘째 여성의 일이 사회적 및 친족 중심의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가족 중심의 것이 될 때, 셋째, 일부 남성들이 국가의 기재(mechanism)를 통하여 다른 남성에 대해 우월한 권력을 주장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교환 및 생산단위의 확대를 기초로 국가기구와 경제체제가 공적, 사적분야로 분리되면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남성들의 통제가 직접적인 개인통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에 의해 중개되는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통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착농경, 사유재산, 국가의 형성과 같은 생산성전문화, 사회적 복합성 등의 증대와 함께 인류가 '원시사회'로부터 '문명사회'로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것이 "가부장제(patriarchy)"이다.

본래 가부장제의 개념은 연장자인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소유인 여성, 자녀, 노동자, 하인 등에 대한 봉건적 지배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여성의 종속을 지칭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K.Millett[20]는 최초로 가부장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여성 억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의미는 아버지의 지배가 아니라 남성의 지배로, 그 자체가 권력관계와 지배의 보편적인 방식을 뜻했다.

S.Goldberg[21]는 가부장제를 위계구조상의 상층부가 압도적으로 남성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산업, 재정, 종교 및 사회적 조직체계로, H.Hartmann[22]은 물적토대를 기초로 한 남성들간의 일련의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였는데 이와같이 가부장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제 자체의 보편적인 특성은 다양한 사회영역과 형태속에서 나타나는 남성지배/여성종속의 사회적 관계의 모든 현상을 표현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위계의 체계이며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고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 권력과 통제력이 부여된다. 또한 가부장제는 계급을 초월하여 남성들 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연대감을 창출하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계급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남성들은 적어도 어떤 여성들을 지배하는 동시에 여성들은 모두 계급을 초월하여 가부장적 체계내에서 억압받는 자로서의 고유한 경험을 갖게 된다.

---

18) ibid., p.50.

19) Hartmann, H.,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vol.1., No.3., 1976, pp.137~169.

20) Millett, K., *Sexual Politics* (London : Hart Davis, 1971).

21) Goldberg, S., *Male Dominance : the Inevitability of Patriarchy*, (London, 1979), p.25.

한편 가부장제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제적 원예사회(patriarchal horticultural societies)/모권중심적 원예사회(matriarchal horticultural societies), 중세봉건적가부장제(feudal patri archy), 자본주의적 가부장제(capitalist patriarchy), 복지국가적 가부장제(welfare state patriarchy), 혹은 재편성된 가부장제(reorganized patriarchy)[22]등으로 생산양식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는 계급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가부장제는 그 자체보다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자본주의사회내에서 가부장제적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여성

초기 자본주의의 단계에 도달하기에 앞서 각국은 자본주의적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을 겪어야만 했다. 봉건체제를 대변하는 집단과 자본주의 체제를 대변하는 집단 사이의 첨예한 투쟁이 있었으며 자본주의가 구래의 자연 경제체제(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를 극복해야만 했다.

"구래의 경제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경제체제가 탄생하여 확립되기 위한 투쟁, 또한 몰락되어 가는 봉건적 지배계급과 신흥자본적 계급간의 정치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극히 황폐해지고 걸인, 부랑자, 무숙자와 실업자군은 셀 수도 없는 지경에 달했다. 이중에서 직업을 잃은 여성의 수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저렴한 여성노동이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 모든 직장에 가득차 있었다… 여성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막기 위해 여성이 숙련공업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가… 후에는 숙련공업자의 조수가 되는 것까지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23]

그 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이래 발견된 신항로와 그로 인해 조성된 광범위한 통사관계의 타개로 중소생산자에게 기계기구를 선대해 주고 선대상인이 주는 원재료를 요구한 바대로 가공시키는 선대제 가내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대제 가내공업 및 각종 제조업(manufacture)에서의 여성의 노동조건은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혹했다.

이 선대제는 원료배분 및 수집의 복잡성, 노동자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등으로 상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면직물 공급을 증대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이 조직되어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내공업은 자본주의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제 대공업으로 대체되었다.

기계제대공업 생산은 생산이 전반적으로 기계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생산과정이 단순화되어 별다른 숙련이나 육체적인 힘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여성과 미성년자의 노동이 요구되었다. 이들의 노동이 선호되는 것은 보다 순종적이며 유순하여 저임금으로 용이하게 동원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성의

22) Dahlerup, D., 서병선 역,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1989, p.84.

23) 玉城肇, 김동희 역, op, cit, pp.143~144.

가족내의 종속적 위치와 산업화 이후 여성의 경제적 영역 상실이 여성으로하여금 취약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H.Hartmann[24]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일어나 가정외부에서 생산에만 종사해야 하는 집단이 필요해졌을 때 여성이 아닌 남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여성이 가정에 머물게 되는 성별 분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분업이 자본가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성들은 기존의 여성을 지배하던 가부장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이 가정에 머물기를 바란다. 여성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정서적, 심리적, 성적 서비스는 물론 경제적으로 중요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이 의존을 통해 남성은 계속적으로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남성 자본가는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가사노동을 전담할 때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이다. 우선 자기자신의 부인의 무임노동을 통해, 또한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 노동을 하는 노동자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은 낮은 지위, 낮은 임금이라는 것 이외에 생애노동이 아닌 유동적인 산업예비군(reserved army)[25]적 특징을 지닌다. 즉 경기가 호황이거나 전쟁시처럼 남성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여성도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공장으로 불러들여지지만 불황이 되고 노동력이 남아 돌 때는 '여성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는 말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다.

"1950년대 덴마크의 경우 1950년대의 경기후퇴와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아래에서 '가정'은 이념적으로 강화되었고 가정주부-가장, 가사노동-임금노동, 여성의 일-남성의 일에 대한 이념적, 경제적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나타났다… 1960년대 초 경제적 호황에 따라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업주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행해졌다… 주부의 취업증대를 위해 시간제 직업이 다양해졌으며 학령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었다. 전업주부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취업한 기혼 여성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26]

이와 같이 가정에 갇혀 있던 주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사회적 노동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정내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의 경제적 기초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적인 산업노동에 참여하게 된 저소득층의 여성은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남편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던 시대와는 달리 남편과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이전의 여성에 비해 그 지위가 상승된 반면 남편이 가정 밖에서 벌어오는 돈으

24) Hartmann, H., op.cit., pp.137~169.

25) 이명희, 「여성과 노동」, 동녘 출판사, 1985, p.26.

26) Borchost, A. & Siim, B, 서명선 역, "여성과 선진복지국가 : 새로운 가부장적 권력관계",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 개발원, 1989, pp.124~126.

로 살림만 하는 상류층 여성은 공동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이전의 여성에 비해 그 지위가 하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미래를 향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계층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생산을 담당하던 과거의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절하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물론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숭고한 사랑과 희생적 활동이라고 찬미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중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는 여성(전업주부)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직접 획득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 일시적 또는 최저의 기반에서 획득되는 대리적 지위만을 보장받고 있다. 이것은 직업(일시적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댓가로 화폐 수입은 물론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여성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비해서 정당하게 사회적지위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22,000여개의 직종을 1-878등급까지 서열을 나누어 분석한 〈직업명칭사전〉[27]을 보면 주부는 328등급에 속하는데, 이와 동일한 등급의 직업에는 유모, 보모, 탁아소 보모, 간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한 대표적인 C.Bose[2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8개 직업에서 주부는 51점의 중간점수를 받았는데, 이와 비슷하게 평가된 직업은 사무실 비서, 품질관리사, 속기사, 치위생사(dental assistant), 조무사(practical nurse)등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활동의 가치를 화폐경제적 관점에서 보려는 물질우선의 가치관으로 인해 무불적(unpaid)성격을 갖는 가사노동이 소비활동으로 그릇되게 평가받아 여성의 역할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성은 생산자이고 여성은 소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상품의 구매와 소비를 동일시함으로써 가정을 전형적인 소비 단위로 파악한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V.Vroom[29]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간의 유일한 차이는 가사노동을 통해 소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사노동이 가시적인(visible)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뿐 생산적인 활동이

27) Scott A.C., 신인령 역, "가사노동의 가치",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출판사, 1983, p.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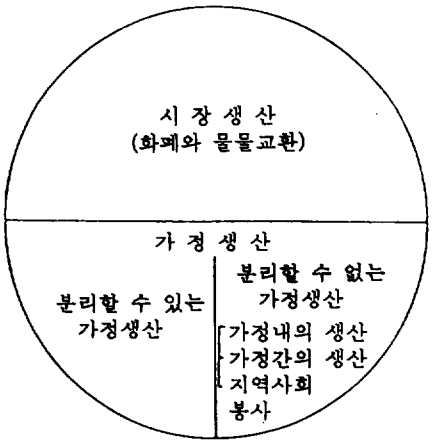
28) Bose, C., "Social Status of the Homemaker", *Women and House hold Labor*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980), pp.69~87.

29) Vroom, V.,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 John Wiley, 1964), p.42를 Oakley A., 문숙재 역, op.cit., p.34에서 재인용.

라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M.Reid[30]는 최초로 가사노동을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규정하고 가정생산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그러한 활동들은 소득, 시장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같은 환경이 가정 밖의 누군가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장 재화나 유급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시장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활동만을 포함함으로써 가족간의 애정적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 등의 사회적 차원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I.F.Beutler와 A.J.Owen[31]은 좀 더 범위를 넓혀 시장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도 가정생산에 포함시켰다.(그림 2)



(그림 2) 생산활동유형

전통적인 소비에 대한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G.S.Becker[32]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 역시 가정에서 구매한 상품이 소비되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정은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에 인적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종 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므로 가사노동이 생산적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P.A.Samuelson[33]은 가사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으로써 그 화폐적 가치가 GNP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총량을 GNP에 포함시킨 순경제적 후생(NEW : Net Economic Welfare)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30) Reid, M.,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34).

31) Beutler, I.F. & Owen, A.J.,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9., No.1., 1980, pp.16~26.

32) Becker, G.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75., No.299., 1965, pp.493~517.

33) Samuelson, "From GNP To New", *Newsweek*, April, 1973, p.43.

한편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한 가사노동의 생산적 성격에 관해 일련의 논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쟁의 촛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은 특정한 효용과 구체적 질을 가진 사용가치, 교환의 전제가 되는 교환가치, 그리고 교환을 통한 잉여가치를 낳는데 과연 가사노동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였다.

W.Seccombe,[34] P.Smith,[35] I.Gerstein[36]등의 학자들은 가사노동이 그러한 3가지의 가치를 다 갖지 못하므로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Benston[37]은 가사노동을 전 자본주의적 형식의 생산노동으로, M.D. Costa[38]는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생산적 노동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이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변형 및 개조 또는 가공하여 그것을 전과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 또한 어떤 유형적인 재화 뿐 아니라 용역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사노동은 생산활동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매행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가족원들의 취향에 알맞게 변형시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또 변형된 재화를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가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실현하는 소비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비생산적인 소비노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Ⅲ. 결 론

현대 사회에서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는 여성은 남편을 통해 일시적이거나 최저의 수준에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즉 주부가 상해, 사망시 배상액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회보장제도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가입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혼시 가족의 재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을 하고 있는 여

34) Seccombe, W., "The Housewife and Her Labor Under Capitalism", 1974, *NLR*, 83, pp.3~24.

35) Smith, P., 강선미 역, op.cit., pp.187~189.

36) Gerstein, I., "Domestic work and Capitalism", *Radical America*, Ⅶ, 1973, pp.113~114.

37) Benston, M., 신인령 역, op.cit., p.313.

38) Costa, M.D.,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Bristol : Falling Wall Press., 1975), p.52.

성의 경우에도 여성의 직업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관계, 성차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사실은, 남성의 활동에 비해 여성의 활동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데에서 초래된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고 남성의 활동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된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의 견해는 현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지만, 여성의 활동과 남성의 활동을 자연과 문화라는 관념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이밖에 여성이 가치가 덜 인정되는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남성은 생산을 담당하는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지배적 직업분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연합한 결과라는 이론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이론을 기초로 현재의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 분업과 사회적 지위상의 불평등의 기원을 과거 역사의 변천 속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중요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거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르게 평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생활자원이 공유되고 여성의 활동은 그 자체가 가치있는 생활활동이었으며, 성별분업에 따른 위계나 계층분화가 나타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다. 그러나 정착농경이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며 공동 생산적 성격의 가사노동은 사적봉사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남성들간의 일련의 사회적 관계로,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화폐적 관점에서 측정하므로 노동을 통해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사노동은 생산이 아닌 소비 활동으로 규정되며 가사노동의 수행자인 여성은 소비자로서 간주되고 있다. 즉 가사노동은 사회적 분업의 일환으로 노동과정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개인적인 소비노동으로 인식되어, 여성은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심지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1932년 A.Huxley[39]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라는 소설에서 미래의 이상향(utopia)을 성생활이 개방되어 있어서 가족의 유대가 사라지고, 계획된 계급구조에 따라 인간이 "생산"되는

39) Huxley, A., 안정효 역, 「멋진 신세계」, 원음출판사, 1984.

초국가적 독재체제로 묘사하였다.

오늘날 인간생활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과학과 기술의 산물을 볼 때 그의 예언은 어느정도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관 아기도 이미 태어났고 태아를 냉동시켜 보관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DNA도 인간의 기술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대량생산하거나 인간의 사고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또한 성생활의 자유가 증가하고 있고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1인가정, 결손가정 등의 출현은 미래 사회에서 가정은 불필요 내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무위론 혹은 가정폐지론을 지지해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은 인류가 출현한 이래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제도로 "신체적, 정신적 조산아"의 상태로 태어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곳으로 존재해 왔으며[40] 이와같은 가정의 성립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사회의 구조가 분업화, 전문화되어지고 인간이 능률위주의 부분적인 인간이 되면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판도라의 상자안에 남겨진 "희망"처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정신적 고향"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이 계속 인간의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유지, 발달시키는 구체적인 활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이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대해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갖는 명백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오랜 역사동안 여성의 천직으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한"활동으로 여겨지면서 그 가치가 은폐되어져 그 역할의 수행자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앞으로 평등적 미래의 구현을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남성의 생산활동과 동일한 노동 즉 "가시적"인 생산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40)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1981, pp.66~67.

Summary

The Past, Present, Future Evaluation of Woman's Housework and the Social Status

Kim Hye-yeon

Although the housework as woman's major role has an important value for human's living and development, its value has been underevaluated through history. The development of patriarchy and capitalism might have been the crucial historical factors causing this result.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unequality of social status between man and woman exist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present study has the suggestion to think the value of housework as productional labor.

In fact, the housework has as equally productional value as man's paid labor.

Woman's social status will be improved when we recognize this value of housework.